

“위대한 선언”

딤후4:6-8

지난 주 타임 메거진 커버는 ‘16 분의 삶과 죽음’이란 타이틀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이 울린 후 대피 할 수 있는 시간이 16 분 밖에 없었기에, ‘16 분의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16 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선언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사도바울은 천국 가기 바로 전,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들의 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선한 싸움을 싸워 왔다”

인생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요, 싸움입니다. 하루도 생존경쟁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모르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육적, 영적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마귀와 세상 유혹을 따를 것이냐 이와 같은 마음에 갈등,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사처럼 변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리낌없이 죄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한동안 참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주일날 되면 좀 쉬고 싶고, 낚시도 가고, 놀러 가도 싶은데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투쟁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 식어져 가는 신앙심과 싸워야 되고 핍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육체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겼듯이 성도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악에 지지 말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의 경주를 끝을 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남보다 좀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놀 것 다 놓고 게으름 피우면 경쟁에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경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나오고 홍해에서 또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싸우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그 다음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함이 낙오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출애굽 1 세대는 낙오되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결국 원망 불평하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부실하면 경기도중 멈추어 서서 한눈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 장 12 절로 14 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쉬면 안됩니다. 꾀대를 향하여 우리가 출발했으면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달음박질 해야 합니다.

3.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과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6 편 34 절로 36 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이상들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에 섰으면 다시는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기독교 세계를 보십시오. 유럽은 기독교 문화만 남고 신앙은 잃어 버린 상태입니다.

유럽은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에 기독교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는 갤럽조사에 60%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주일 교회 나가는 숫자는 전체 국민의 5%밖에 안됩니다. 영국이 한때 기독교 대국이었을 때 그들의 영토가 세계로 뻗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력이 점점 소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잃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캐네디 대통령 재직 때인 1963년에 대법원이 국립학교에서 성경 교육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30년간 국가적으로 얼마나 표류했는지 폭력 범죄가 560% 상승했고, 사생아가 400% 증가하고, 결손가정 아동이 3배가 늘고, 10대 자살은 200% 늘고, 대학입학시험 성적은 80%가 하락했다고 미국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이 책에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오바마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선언 했기에 지난 1년간 미국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 나라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새운 나라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영적 지도자 중의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번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로 비유했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뜨거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이 타야 합니다.

4.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천국서 가장 큰 상급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딤후 4:2 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교회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섬겼으며 그는 지난 2011년에 79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제리와 함께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데이빗 윌커슨 목사의 50년이 넘는 사역은 한 가지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음성에 순종해서, TV 끄기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는, TV를 끄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한번의 결단이 그의 삶 전체와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윌커슨 목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할렘가로 갔을 때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을 인해 축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별볼일 없는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뒤 돌아보며 우리들도 사도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싸우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 마지막 날에 모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별과 같이 빛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각 가정마다 지난 주 목장모임 나눔에서 적용계획 세우신 것들을 실천하신 후 느낌을 나누어 주십시오.
3.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과 지체들 앞에서 나누고 싶은 "나의 믿음 선언"은 무엇일지 나누어 주십시오.
4.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5.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구원을 위한 인생계획과 관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